



소리주보



작품 : 권정옥 스테파니아(천곡성당·부산가톨릭미술인회)



교황님의 기도 지향

6월 [조국을 떠나는 이주민들]

전쟁이나 기아를 피하여 위험과 폭력이 난무하는
여정에 내몰린 이주민들이 도착 국가에서 환대받고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기도합니다.

연중 제12주일 2024년 6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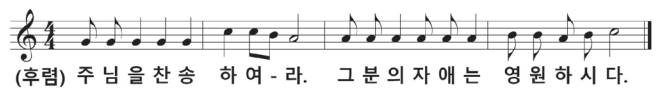
입 당 송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

제 1 독 서 욥기 38,1.8-11

화 답 송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후렴) 주님을 찬송 하여 - 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 하시 다.

1.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
2.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
3.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
4.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

제 2 독 서 코린토 2서 5,14-1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 음 마르코 4,35-41

영 성 체 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나를 구원할 분이 내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면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가르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려움을 벗기 위함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누리는 평화 때문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적어도 이 믿음을 통해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거나, 나에게만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남들보다 운이 많은 나이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삶에서 심 없이 고통이 몰려오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죽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할 분이 내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해야 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마르 4,38)

사실 아무리 작은 너울이라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 충격과 걱정은 큰 돌풍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또 사실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돌풍이 오기도 합니다. 큰 돌풍이 우리가 정신도 못 차리게 온다든지, 연속적으

로 온다든지 하는 것에 우리는 절망하지만,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내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과 모르고 항해를 하는 것과는 배 위에서의 삶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돌풍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풍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믿고 돌풍이 불고 배가 침몰할 거 같은 상황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고 성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뿐이지 우리 인생의 많은 돌풍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잠잠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마르 4,41)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계신 분들은 “내 인생에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그 어떤 돌풍에도 난 평화를 누릴 수 있기에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평화로우면 됩니다.

작품 설명



작품 : 권정옥 스테파니아
(천국성당·부산가톨릭미술인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마르 4,40)
우리의 인생의 배는 잦은 폭풍우와 안개와 암초에 부딪혀 뚫도 꺾여 앞으로 못 나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께서 더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용기내어 사랑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김원석 아우구스티노 신부
부산성모병원 원목

나일강에서 만난 평범한 성자

‘탈출기’라는 용어 대신 ‘출애굽기’로 익숙했던 ‘애굽’은 ‘이집트’를 지칭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 시대에도, 3천 5백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는 건, 그 뜨거운 땅을 가로지르며 유유히 흐르고 있는 나일강일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강을 어머니의 품으로 삼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아브드도 그중 한 사람이다.

아브드는 관광객들을 위해 낡고 오래된 배를 운전하면서 살아가는 나일강변 토박이다. 처음 만난 날도 그는 여기저기가 헤진 갈리베이아를 입은 채 익숙한 솜씨로 배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잔심부름하고 있었다. 소년은 아브드의 등 뒤에 숨은 채 수줍은 미소로써 인사를 건넸다. 소년의 이름은 이슬람교도의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인 모하메드다. 인연이었는지 다음 날도 같은 배를 탔다. 반가운 마음에 아브드와 인사를 나누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아들은 어디 갔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크게 손사래를 치며, 모하메드는 자기 아이가 아니란다. 덧붙여서 비록 나이는 좀 들었지만, 자신은 결혼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는 총각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배가 나일강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가 들려준 ‘총각이 아이와 함께 사는 사연’은 이러했다.

단다.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아이는 자연스레 길거리의 거지가 되었던다. 오가다 만날 때마다 먹을 걸 챙겨줬더니 언제부턴가 아예 자기 집에 와서 살더라. 이때부터 둘의 동행은 시작되었고 소년은 총각의 일을 배워가며 작은 뱃사공이 되고 있단다.

“그냥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다니는 길에, 내 눈이 볼 수 있는 데다가 신이 놓아둔 거지요. 어린 모하메드예요. 그러니 어찌겠어요. 신의 보살핌으로 다행히 저는 일을 할 수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잘 곳도 있지요. 나도 저 아이처럼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 나누는 것일 뿐이죠.” 사실, 아브드의 행동은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렇다고 매정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거친 사막을 가는 동반자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보니, 어쩌면 우리는 ‘선택적 장님’으로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느님이 종종 우리의 눈앞에 무언가를 가져다 놓지만, 우리는 원하는 것만 보고 들으면서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한다. 그리고 보니, 내가 만난 나일강의 뱃사공은 다른 언어, 다른 피부색, 다른 종교를 가진 ‘평범한 성자’였음이 틀림없다.

아이가 서너 살 때 아이 부모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

박선정 헬레나
남천성당 · 인문학당 달리 소장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101.1MHz	울산 FM 93.7MHz	녹산(서부산) FM 101.5MHz	마산 FM 101.7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재) 16:50 6.24(월)~6.29(토) 김원석 신부(부산성모병원 원목)
사랑이 있는 세상  6.25(화) 11:00~12:00 진행: 김진호 신부(스페셜DJ) <가톨릭문화살롱:음악> 출연: 이태영 마누엘 (부산가톨릭합창단 부지휘자)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1부 <생활성가 플리마켓> 출연: 서예정 세실리아(남천) 2부 <찬양콘서트> 출연: '은혜의 딸' 찬양팀 6.28(금) 14:00~16:00 진행: 김진호 신부, 박소정 찬양사도				

새로운 삶에 한걸음 가까이

저는 오순절평화의마을에서 생활 중인 ○○○입니다. 2021년 가을, 정년을 2년 앞두고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탓에 이직은 물론, 다른 직업으로의 취직도 힘들었습니다. 살길이 막막하여 여행이라도 떠나고자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모아둔 돈을 모두 써버려 노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밀양역 앞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가던 중, 인근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노숙인을 위한 시설을 안내해 주셨고, 이곳 오순절평화의마을에 입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리에서의 생활이나 홀로 지내던 시간을 뒤로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나 싶었는데 시설에서 시켜주는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저에게 간암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을 이겨내기에는 스스로 너무 지쳐있었고, 이미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선생님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는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통해 실질적인



병과 싸울 수 있게 도움을 주셨고, 안으로는 제가 미술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통해 마음의 병과도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제가 우울감에 파묻히지 않도록 노래교실,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셨습니다.

간암 판정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오늘도 투병 중입니다. 하지만 미술심리치료를 통해 저의 그림에 대한 재능을 찾을 수 있었고, 노래교실을 통해 매일의 즐거움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하느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 주신 또 다른 삶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인생의 전환기가 있다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곁에도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잊히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하느님의 품에 안겨주는 것에는 약간의 관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처럼 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저는 예비신자 ○○○입니다.



<생활인들의 하루>
영상보기

오순절평화의마을 희망의집/사랑의집
입소문의 055-352-4241(내선 816, 818번)

오륜대순교자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6월 9일~6월 15일] 합계 : 29,052,000원, 누계 : 2,797,569,332원

천국성당 20,000,000 우정초등부 400,000 망미연미형제반 322,000 옥동첫영성체아이 350,000 방어진자모신마리아 100,000 통신교리봉사단 100,000
수정마을파티마의성모 200,000 김숙진 1,000,000 고 전금자 50,000 고 이명열 50,000 이명숙 600,000 이대희 150,000 이형자 100,000 황종우 50,000
홍정민 500,000 김화익 100,000 김규열 100,000 김영이 100,000 김순영 100,000 김영국 100,000 이윤희 20,000 이광직 20,000 정주원 10,000
정원봉 500,000 지경희 100,000 박남조 100,000 김영덕 100,000 김진옥 100,000 최대순 100,000 윤기식 50,000 박보서 50,000 최정내 50,000
성경혜 500,000 박준현 100,000 이동형 100,000 윤정은 200,000 차필근 200,000 성희숙 200,000 최지영 10,000 이복순 50,000 임재숙 30,000
황만옥 200,000 정자윤 300,000 박기대 200,000 조석래 100,000 박명자 100,000 신봉철 100,000 임순분 50,000 안창열 50,000 임우택 30,000
박춘화 100,000 차미향 200,000 이송희 100,000 김우순 100,000 이범규 100,000 신세경 100,000 신현기 50,000 장명숙 50,000 김진선 50,000
김미혜리 10,000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협 301-0629-8734-11, 부산 113-2014-1175-03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어린이 기자단 창단식

cpbc부산가톨릭평화방송(사장 : 박명제 신부)은 지난 6월 11일(화) 어린이 기자단을 창단했다. 어린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세상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담기 위해 창단된 cpbc부산가톨릭평화방송 어린이 기자단은 5주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향후 어린이 기자단이 참여한 콘텐츠는 매달 유튜브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중앙성당 상우회, 청소년 지원과 불우이웃 돕기 위한 농산물 판매



6월 8일(토)~9일(일)

주임: 김명선 신부, 상우회 회장: 박도연 요아킴



6월 17일(월)~18일(화) 배론성지

본당사무직원연합회(지도: 곽길섭 신부, 회장: 김성수 대건안드레아)



삼종기도를 바치는 자세는 무엇인가요?

기도 중에 고개를 숙여 절해야 하나요?

삼종기도는 전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와 관련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 안에서 이어온 기도의 관습은 “어느 모로든 전례에서 이끌어 내고 백성을 전례로 이끌어들이 전례와 조화를 이루도록 마련되어야” (전례헌장 13항) 하므로, 이 관습에 대해 전례 규정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삼종기도를 바칠 때는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무릎 절’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며, 무릎 절은 성체께 대한 흠숭을 뜻합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74항) 성체는 주님의 몸이며, 이 몸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신비’의 결정체이므로, 육화 신비에 대해서도 같은 무릎 절로 흠숭을 드립니다. 결국, 삼종기도는 주님의 육화 사건을 기억하고 그 신비를 흠숭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미사의 신앙고백 중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

리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신경),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사도신경) 대목에서 ‘깊은 절’을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삼종기도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부분에서 다시 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육화 신비를 흠숭하며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활시기와 주일(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는 일어서서 기도하는데 이는 부활을 드러내는 자세입니다. 특히 부활시기에는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로 시작하는 부활삼종기도를 바칩니다. 부활시기가 아닌 주일에 서서 기도하거나 건강이나 다른 이유로 서서 기도한다면 이때는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부분에 깊은 절로 흠숭을 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전례위원회

“청소년, 청년들 환영한 데이!”

지난 5월 26일(일) 남산성당(주임: 김준한 신부, 회장: 조일제 마르코)은 청소년·청년의 해(1) ‘환대와 경청의 해’를 지내면서, 본당 공동체가 하나되어 ‘청청한 day 환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구역 분과(쉬는 교우 회두)의 노력과 청소년분과의 지속적인 홍보로 기존 청소년, 청년신자뿐만 아니라 쉬고 있는 청소년과 비신자 150여 명이

참여했다. 특별히 이날 교중 미사는 청소년 미사로 봉헌해, 본당 신자들과 함께 찬미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미사 후에는 먹거리 및 경품 나눔, 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남산성당은 2024년 하반기에 ‘경청’을 주제로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I 부산교구 소속 군종사제 인사발령 *부임일자: 2024.07.06

성명	계시던 곳	가시는 곳
김창환	상승대성당(제7기동군단사령부)	백두산성당(제21보병사단)
박근혁	칠성대성당(공군 작전사령부)	화성대성당(제10전투비행단)
최혁	해성대성당(제5공중기동비행단)	공군중앙성당(항공안전단)
윤성완	성요셉1군단성당(제1군단사령부)	전역(부산교구) 2024.6.30일자
류창훈	백마대성당(특수전학교)	성례오성당(특수전사령부)
최연수	인천해군성당(인천해역방어사령부)	해군중앙성당(재경군무지원대대)
전재경	청성성당(제6보병사단)	전승성당(제51지역방위사단)
정성호	2024년 7월 1일 임관	을지성당(제12보병사단)

서울 공예

목주반지 전문 금방
패션제품, 예물, 커플링
황근영(바울라) (주.아) 631-5006~7
범일역 12번출구 중앙귀금속 115호

세무회계무진

기장대행/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양도세/상속세/증여세/세무상담
대표세무사 김성수(미카엘)
전포동 한신벤 010-5777-1722

눈시원 안과

백내장, 노안교정, 라식/라섹, 드림렌즈
전.국토농성모안과 공동원장
이현석(분도) 631-6622
범내골역 2번출구 제2향운병원 4층

인산죽염 부산지사(동래)

대표 김기룡(야고버)
죽염·유황오리진액·호두액·친환경
557-5553 동래 대동병원 맞은편
대리점, 취급점 모집

성신익스프레스(영구이사)

이사전문, 청소상담, 기업이사
어려운 이웃돌봄(무료이사상담)
대표: 김명수 대건안드레아
대표번호 010-8521-2488

숙편한내과의원

조성락, 김주호, 김진도, 임성엽
허정호, 한서룡, 이정현, 장형하, 정재원
검진에서 진단, 치료까지 꼼꼼한 건강체크
동래역 1호선 1번출구 554-1088

성모치과

임플란트·심미보철·보험틀니
송치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역 2번출구 80m

수맥상담소

깊은 숙면을 할 수 있는 기쁜소식
김효선 아녜스 010-2377-2769
서순복 발비나 010-3862-6834
수맥 무료교육

교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울산)

·6.28(금) 13:30 묵주기도, 14:00 미사
·월평성당 / 문의: 629-8760(성소국)

본당

무거성당 성가대 지휘자 구함

서류: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문의: (052)277-1644(본당사무실)

기관·제 단체·위원회

오순절평화의마을 6월 울산후원회미사

울산: 6.24(월) 11:00 야음성당
문의: 782-0765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연합 쉼 대피정

·6.24(월) 13:00~ 미사 15:10
강의: 김명숙 수녀(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미사 주례: 신호철 주교(부산교구 총대리)
문의: 646-3746, 010-6764-3746

노동사목 바자율미사(후원미사)

·6.27(목) 19:00 ·노동사목센터 3층
문의: 441-6403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6.28(금) 10:30, 후원을 위한 감사 간식 제공
·남천성당 / 문의: 623-4528(사무실)

혼인미사(결혼식) 특전

내용: 스튜디오 웨딩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특전: ① 커플 당 286만원 할인 ② One Stop형
편리한 혼인 준비 / 문의: catholicwedding.kr
441-3500(부산가정성당)

부산가톨릭평화방송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9.22 마카오 순례 4일(BX) 125만원
·9.24 나가사키 4일(KE) 135만원
·10.7 발칸, 메주고리에 11일(KE) 550만원
·10.15 스페인 성모성지 11일(KE) 570만원
·10.24 다낭 순례 5일(LJ) 145만원
·12.2 나가사키 3일(KE) 115만원
문의: 010-3837-6434

성령새신 봉사회(영성의집)

- 월요찬양미사·기도회(안수)
· 6.24(월), 7.15(월) 19:30 전포성당
- 수요 성시간 치유기도미사
· 6.26(수) 13:00~15:30
- 가야성당 금요 밤미사(매월 넷째 금요일)
· 6.28(금) 19:50~22:30
문의 : (055)382-9465

성령새신 봉사회(울산 영성의집)

- 목요 밤 미사 : 6.27(목) 20:00~22:30
문의 : (052)244-7014

부산가톨릭 음악세상 ⑭

· 6.24(월) 19:00 라틴어 노래 미사 19:50 음악회
· 신학교정 대성당(이정식 요한관)
미사주례 : 임석수 신부
출연 : 부산가톨릭합창단, 뽀레나양상블
문의 : 010-7767-4390(무료초대)

정의평화위원회 천사네 10주년 감사미사

· 6.29(토) 16:00 · 가톨릭센터 3층
친교와 미사 / 문의 : 010-3561-5159

교구평협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 6.29(토) 출발 : 수영장대순교성지(13:00),
온천천입구(14:00), 도착 : 오륜대순교자성지
경유 : 동래역(15:00)-장전역(16:00)-오륜
대성지(16:40)-파견미사(17:00)
문의 : 629-8713(교구평협 사무국, 사목기획실)

교육·모집·기타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성소모임

· 6.30(일) 13:30 · 본원
문의 : 010-2641-4819

분도유치원 조리사 구함

자격 : 조리사 자격증(1명) * 책임있고 성실한
유경험자 / 문의 : 753-2139, 2136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08. 6. 25.
박문선(야고보) 신부님



영원한도움의성모 노베나피정(구속주회)

· 6.25(화) 13:30 · 서면성당
내용 : 기도, 강의, 미사, 고해성사
문의 : 010-2754-5031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 6.28(금) 14:00~16:00
· 성분도 은혜의 집 4층(신청필수)
문의 : (02)379-8091, 010-6311-8071

한국순교복자발마수녀회 후원회 미사

· 6.29(토) 11:00 · 양산 무아의 집 / 범일성당앞
김안과(09:00), 장전역 4번출구(09:00), 가야
성당(09:00) 김해임호성당정류소(09:00) 출발
문의 : (055)385-5838, 010-3355-4997

마리아 수녀회 후원회 미사

· 7.1(월) 11:00 (미사 후 점심식사 제공)
· 송도 알로이시오 놀이터 1층
문의 : 250-5406, 010-6267-9442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미사

대상 : 협력자 회원 & 개인 누구나 참여가능
· 매월 넷째주 월요일 11:00
· 오륜동 성바오로서원 / 문의 : 521-8898

말씀학교 소예언서 무료강좌

· 8.28~ 10:00~12:30 · 가톨릭센터 3층
총14주 / 성바오로수도회 양은철 신부
문의 : 010-9333-6260 *프린트물 제공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피정

· 6.29(토) 14:00~30(일) 14:00
· 청주 초정성령회관 / 진행 : 고영민(찬양부)
피정 참가비 : 2만원, 청소년 무료
강사 : 김웅렬 신부, 김완식 요셉
문의 : (043)213-9103, 010-5482-6744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하느님,바람,나(힐링피정) : 7.5(금)~7(일)
효소단식 : 7.11(목)~14(일), 8.9(금)~12(월)
성경완독 : 7.26(금)~8.3(토), 8.23(금)~31(토)
문의 : 010-3340-0201(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성모솔숲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 7.12~14, 8.9~11, 9.13~15(매월 둘째주 금~일)
문의 : 010-3209-3955(문자접수)

성모승천 전례피정

· 8.13(화) 16:00~15(목) 13:00 ·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 30만원(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 010-6791-0071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연중피정 접수중)
추라도포함 : 9.11~14, 10.5~8, 10.27~30
우도섬포함 : 7.12~14, 7.20~22, 7.25~28
8.1~4, 8.6~8, 8.10~13, 8.24~26
자연순례 : 9.2~4, 9.7~9, 9.21~23, 9.24~26
대상 :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문의 : (064)796-4182, (02)773-1455

제21회 가톨릭 대안 좋은 학교 연수

· 7.20(토)~21(일) · 양업고등학교
대상 : '좋은 교육(Quality)'에 관심있는 모든 분
접수 : 7.9(화) 10:00부터 선착순, 회비 : 8만원
(식비 포함) / 문의 : (043)260-507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입양상담 : (02)764-4741~3
www.holyfcac.or.kr

부산성모병원 심혈관센터

* 필립스 아주리온5 M20의 장점

- ✓ 월등한 해상도
- ✓ 최대 75% 적은 방사선량
- ✓ 넓은 혈관 검사 범위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 제공"



전문진료과목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중재시술
부정맥·고혈압



순환기내과 전문의
권용섭 과장



순환기내과 전문의
박주현 과장

문의 : 051)933-7243(순환기내과)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가안방문요양센터 노인장기요양 상담 및 신청대행 자택돌봄(방문요양) / 부산·양산·김해 전지역 / 국비지원(100~85%) 최윤희 미카엘라 010-3560-7285	장정에 한복 동국주단 부산진성 서문입구 010-9243-5776	독 일 보 청 기 독일정품, 난청유형별맞춤처방 정부지원보조금상당,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동래구 총렬대로229 수안역 7번출구	힐 데 갈드 화 장 품 투스프교 베네딕도 대구 수녀원 크림, 샴푸, 비누, 로션, 스킨 문의 010-5117-1160
삼 진 커 텐 수입커텐, 각종커텐, 롤스크린 우드 블라인더, 콤비 블라인더 부산진시장 1층 11호문 입구 이영복 요셉 634-1452	누리사랑외과소아청소년과의원 외과/항문질환/만성질환/영양수액 손창목 가브리엘/신영순 아녜스 747-7550 백스코역 우동메디컬센터 3층(성모안과 옆)	파인힐병원(명원의료재단) 암재활 중점 치료(양한방 치료) 무릎관절 중점치료(실비적용) 김진목 루카 병원장 박정미 헬레나 이사장 1661-0089(울산역 11km)	리드101(부산마린점) 큰 차이를 만드는 영어원서도서관 결론은 리딩입니다. 리딩은 리드101 원장 신현주 플로라(7154-101) 마린시티 해원초 옆 마린파크 4층